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十二面

社說

猶太民族의 前途

一

나치스의 大彈壓을 契機로하야 全世界猶太民族各機關의 代表가 론돈에 大會를 열고 그 民族問題를 協議하려한다는 報道가 잇고, 그들의 主되는 議題는 民族代表者를 國際聯盟幹部에 參加시키는것, 世界各國의 猶太民族委員會를 國聯으로하여곰 承認케하는것이라하며 이 運動의 中心人物은 와이즈만博士라고 한다.

二

猶太民族大會가 英國의 首都에 열릴것은 當然한일이다. 一九一七年 英外相 발포아氏는 猶太族의 故土인 팔레스타인을 將來 猶太族의 故國일것을 宣言하엿고 爾來 十六年間 팔레스타인의 委任統治者인 英國은 猶太族의 故土移住를 奬勵하야 一九二九年에는 現土著民인 回敎徒의 反抗을 三回나 彈壓까지도 敢行하엿다. 그럼으로 猶太族의 唯一이오 또 有力한 同情者는 英國이니 그들이 英國에 依賴할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果然 現在의 猶太族은 英國의 後援下에 그故土 팔레스타인에서 二千年斷絶되엇던 國家生活을 再現할수가 잇슬까.

三

猶太族은 아브라함을 信君으로하는 民族으로서 아마 世界文化民族中에 가장 受難을 만히한 民族일것이다. 猶太族의 建國史는 四千年에 溯及할수잇거니와 同族인 이스라엘王國과 猶太王國과의 抗爭은 우리의 高句麗新羅의 抗爭에 對比할수잇고 西紀前五八六年에 바빌로니아王 네브가데네살에게 征服을 當하야 全民族이 七十年間 바빌로니아의 捕虜生活을 하게된것은 高句麗가 唐高宗에게當한일과 비슷하다.

그後 마세도니아、埃及、수리아等에 隸屬하다가 西紀前七〇年 로마帝國의 손에 滅亡되어 人民이 各地로 追放되니 이에 猶太族의 國家生活은 完全且永久히 廢絶되고말앗다.

爾來 二千年間 猶太族은 여호아의 選民이라는 民族的自尊心을 唯一한 結紐로 삼고 世界各民族中에 흐터저서 各其 所住國의 國籍을 가지고 言語를 쓰면서도 血統과 民族性만은 同化되지는못하고 恒常 虐待와 排斥을 바다왓다.

지금 世界에는 一千六百萬의 猶太民族이 잇서 그中에 一千萬은 歐羅巴의、四百五十萬人은 米國의 各都市에 살며 뉴욕市에만 二百八十萬人、伯林에만 二十萬人을 算한다고한다. 게다가 猶太族은 金融과 商業에 絶對한 勢力을 가젓슬뿐더러 政治界、學界에도 큰 努力을 가지고잇다.

이러하건마는——아니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憎惡의 對象이 되고 排斥의 標的이되고 잇는것이다.

四

猶太民族은 失國한지 二千年間에 여러번 祖國을 恢復하려는 運動을 하엿스나 다 失敗에 돌아갓다. 그들은 언제든지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내어 흐터진 이스라엘族을 시온으로 모아주시란 希望을 가지고 왓다. 이것이 시온이즘, 卽 시온에 恢復運動이라는것이다. 一八九六年에 테오돌 헤르쓸博士가 「猶太國」이라는 書를 出版하야 同族의 팔레스타인 歸還、猶太族의 國家建設을 主張한것이나 相對性原理의 아인스타인博士가 팔레스타인大學建設運動을 한것이나 다 이 시온이즘의 片鱗이어니와 英國이 猶太族國家建設을 援助하는것도 이 一千六百萬猶太族의 憧憬이 시온이즘에 잇는것을 看取한外交手腕이다.

五

個人主義와 國際主義는 猶太民族의 生活의 自衛手段이엇다. 民族主義의 擴盛은 必然的으로 各所在國에서 異民族인 猶太人의 排斥을 誘發할것이다. 그럼으로 猶太民族은 異民族의 國土에 散在한 동안 反民族主義者일 運命에 잇다. 나치스의 猶太人排斥의 理由의 하나는 여기 잇는것이다.

그러할진대 全世界를 通하야 바야흐로 民族主義熱潮가 澎湃하야 廢止할바를 모르는 오늘날에 잇서 死滅가 되어버린 國際聯盟에나 매여달리는 것으로 猶太民族問題를 解決할수는 업슬것이니 猶太民族問題가 어떤 方向으로 解決될가는 다만 世界的으로만 아니라 人類의 全歷史에 重大한 興味잇는 問題일것이다.

經濟回復手段으로 低關稅實現決意

個別的交涉으로 通商條約締結

米大統領의 新關稅策

루즈벨트氏

【聯合華盛頓十三日發】 몬테비데오에 開催中인 汎米會議席上 헐米國國務長官이 世界貿易回復의 手段으로서 各國의 現下의 關稅率의 低減을 圖할것을 主張한것은 米國의 傳統的關稅政策의 轉向을 意味하는것이라하야 多大한 注目을 集하얏는바 루즈벨트大統領自身도 「헐」長官과 가티 經濟回復의 手段으로서 全世界의 低關稅實現에 邁進할 決意를 가지고 잇다 오즉 루즈벨트大統領의 意向으로서는 이런 低關稅政策의 實現는 現在의 國際情勢에 鑑하야 多邊的國際協定에 依할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事情에 잇슴으로 各關係國과의 個別的二國交涉에 依한 互惠主義에 基한 通商條約을 締結함에 依하야 低關稅政策을 實現하는것이 가장 有効適切한것이라하야 期待된다 따라 루즈벨트大統領으로서는 이 方面에서 新關稅政策實現에 邁進할것으로 觀測한다

米國通信事業統制 委員會三試案提出

【聯合華盛頓十三日發】 米國의 通信事業統制에 對하야 일측부터 審議를 거듭하든 通信問題特別委員會는 本日 루즈벨트大統領下에 假報告를 提出하고 左의 三試案을 提示하얏다

一、通信界의 現狀을 何等 變更치안코 維持하는 案

一、電話電信及無線의 各事業을 政府의 嚴重한 統制下에 各獨占事業으로 함

一、通信事業의 全般을 政府의 國營에 委하는 案

右報告에 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議會에서의 關係委員會의 報告를 檢討할 用意가 잇다고 別段 意見의 發表는 하지 안엇다

赤衛兵舍로부터 滿洲國內로射擊

滿洲里蘇領事에抗議

【電通滿洲里十四日發】 去六日 三河地方警察署의 對岸에 잇는 쏘베트聯邦赤衛軍兵舍에서 一齊히 射擊을 受한 事實에 對하야 滿洲國滿洲里外交辦事處에서는 同夜 對岸兵舍에서 約三十分에 亘하야 滿洲國側에 向하야 機關銃及小銃으로서 一齊射擊을 行하고 三十餘名의 騎兵이 對岸을 森嚴히 示威運動을 하엿다는 情報를 得하얏슴으로 七日滿洲里駐在의 쏘베트領事에 對하야 右事實을 通하고 嚴重抗議를 하얏다

【聯合모스코바十三日發】 「하바롭스크」에서 當地에 達한 報道로서 타스通信社의 發表하는 바에 依하면 北鐵西部線 博克圖驛에서 蘇滿兩國人間에 紛擾가 잇서 滿洲國側職員은 쏘베트聯邦側職員에 對하야 不法行爲를 하야 特히 佐藤顧問이 말코비스키스란이를 毆打한 件에 關하야 北鐵管理局長 루디氏는 十三日 博克圖驛技師 네스테로프氏에 對하야 이의 正式調査를 命하얏다 一方 北鐵副理事長 반도로프氏는 理事長 李紹庚氏에 對하야 文書로 抗議를 提起하야 滿洲國側職員의 專斷行爲를 非議하고 또 佐藤顧問의 罷免과 곳 理事會를 召集하기를 要求하얏다

◇時事漫畫◇

胡漢民의福建獨立觀

胡『하하元氣만은 조흔데 反省이 업스면아마뎌썩리에게ㄷ할것갓해』

五割쯤引下하야 弗價를安定하라

토마스上院議員의意向

【電通워싱톤十三日發】 인풀레政策主唱者의 一人인 오크라하마州選出上院議員 엘마·토마스氏는 今日如左한意見을發表하얏다

米國聯邦準備銀行 英蘭銀行及佛國銀行의 三者間에 弗價를 三十四弗一仙 卽三割五分의 切下로 安定케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얏다고 하는데 萬若이것이 事實이라 하면 弗價를 적어도 五割切下하자는 主張을 가진 議會內의 平價切下問題를 中心으로하고 一大論戰이 展開되게될것이다 余는 議會에잇서서 루즈벨트大統領의 通貨政策에 滿腔의 支持를 與하려하는것이다 余의 意見으로서는 弗價는 우선 五割을 引下하야 安定케한後 新平價를 基準으로 政府發行證券을 回收하야서 政府는 五割의 利益, 卽 復興費의 約四十三億二千五百萬弗의 利益을 得하기로되고 또 누구에게나 損失을 주지안케될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大統領은 議會의 態度如何에 依하야는 斷然한 態度를 表明할것이다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토마스氏의 루즈벨트大統領支持의 聲明은 大統領의 通貨問題가 토마스氏等을 中心으로하는 인플레슈니스트의 滿足할 處理이엇다

白耳義에스토니아 戰債支拂不能通告

【聯合華盛頓十三日發】 白耳義 에스토니아兩國政府는 來十二月十五日期限到來하는 對米戰債年賦金은 支拂不能이라는 旨를 正式으로 米國政府에 通告하얏다 또 오스트리아도 來一月一日米國에 對하야 救濟公債의 一部를 償還으로하야 四十六萬三千弗을 支拂치안으면 안될터인데 이도또한 支拂不能이될模樣이다

蔣氏、張學良氏에 歸國反對打電

【電通北平十四日發】 中國側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張學良氏의 歸國에 對하야 反對의 意向을 有하고잇고 張學良氏에 對하야 貴下의 歸國은 諸般事情으로 보아 時期尙早이라는 旨를 打電하얏다 그리고 萬若 張學良氏가 蔣의 意向에 反하야 억지로 歸國할 時에는 相當한 紛糾가 釀成될것으로 一部에서는 觀測하고잇다

자바이칼鐵道本部 次長에 모氏任命

【電通滿洲里十四日發】 最近 智多市에잇는 자바이칼鐵道本部의 鐵道部長及政治部長으로 現役師團長을 任命하야 同鐵道의 軍事的統制를 企圖하고잇든 蘇聯邦當局은 智多市가 極東西伯利亞에 在한 重要性에 鑑하야 現次長 드로진氏의 消極的行動을 不可타하야 이를 左遷하고 모로도리오프氏를 新次長에任命하얏다 同氏는 蘇聯邦의 共産黨員의 最尖銳分子로 발틱艦隊의 海兵出身으로 革命當時 積極的行動에나서 名聲이 낫고 [illegible] 든사람이다

五年後蘇空軍力 全歐洲空軍에匹敵

蘇訪問의佛航空相談

【聯合巴里十三日發】 最近쏘베트聯邦을 訪問旅行하고 도라온 佛航空相피엘 코트氏는 本日下院外交委員會席上에서 蘇聯의 航空軍備充實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쏘베트聯邦의 航空界特히 空軍의 活躍은 顯著한바잇서 今後五個年後의 蘇聯의 空軍은 全歐洲의 空軍을 合同한것만한 實力을 示할것이다 軍需品의 産業政策도 各方에서 宏壯한 努力으로行하는바 그工場은 모다가장 近接한 國境에서 적어도 七百키로의 距離에잇서 安全地帶에 置하얏다

撤返還要求問題 佛大使陸相訪問

【聯合東京電話】 駐日佛國大使리라氏는 十四日 午前十時 陸相官邸에 荒木陸相을 訪問하고 一時間에 亘하야 會談하고 同十一時半辭去하얏는데 右는 獨逸이 最近首相의 자―ㄹ 返還要求에 關한 內容을 說明하야 이에 對한 佛國政府의 態度를 通하고 諒解를 要求한것으로 觀測된다

八年度朝鮮米 買上數量 十四日에發表

八年度産朝鮮米第一回買上決定數量은 十四日午後三時半農林省米穀事務所에서 如左히 發表하얏다

▲玄米 京城(仁川鎭南浦含)七萬二千九百八十石 群山(木浦含)十四萬一千七百二十一石二斗 釜山 二萬四千九百四十六石 計 二十三萬九千六百四十七石二斗

▲籾 京城 二萬七千九百十四石三斗

洮索鐵道開通

【電通齊齊哈爾發】 滿洲事變以來不通하엿든 洮索鐵道葛根廟間은 二年三個月만에 十二日부터 開通하얏다

新春文藝懸賞募集

應募期限十二月十五日

論文

文藝評論(題隨意)

評壇의 沈滯와 無權威는 大衆의 銳敏한 批判의 對象이 되고잇는것은 가리우지못할 事實이 되어잇습니다. 朝鮮新文學의 指標가 되며 原動力이 될만한 大文字의 出現은 待望되지 안코 잇습니다. 이제 우리는 滿天下에 숨은 論客을 推薦하는 意味에서 題目을 걸지안코 文藝評論을 모으기로하엿습니다. 作家評이거나 作品評이거나, 硏究論文이거나, 文明批評的論文이거나 其他 무엇이거나 文藝에 關聯된 卓論을 보내주십시오

賞金…「甲」一人五拾圓 「乙」二人貳拾圓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一百枚以內

創作

短篇小說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五十枚로 하되 剽窃品은 當選發表가 잇슨後라도 理由를 擧하야 紙上으로 取消함

賞金…甲 一人五十圓 乙 一人貳拾圓

戱曲

規定과 賞品은 短篇小說과 同一함

詩歌

A新詩 B民謠 C時調

賞金…各二人『合六人』一人各五圓

流行歌

或低劣한레코―드流行歌가 一般家庭에 惡影響을 주고잇는것이 만흠으로 이것을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를 레코―드에게 選物로드리고자 當選作은 各著名한 레코―드會社에 付託하야 吹入코자함

『規定』一人二篇式十二篇(一篇三節) 賞金은 詩歌와 同一함

兒童作品

童話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二十枚以內 賞金…二人各五圓 但剽窃品은無効

童謠 賞金…三人 各三圓

兒童自由畫 五人 賞品 水彩畫具一式

『規定』臨本을 模寫는 無効로하되 學校擔任先生의 選拔도 歡迎

選外佳作 薄謝進呈

朝鮮日報社編輯局

世界情勢에鑑하야 三大貿易新政策

商工省議會에提出豫定

【電通東京電話】 現下의 一般的國際經濟情勢並 世界의 모든方面에서 防遏을 밧는 日本輸出貿易의 特殊情勢에 鑑하야 政府는 只今이야말로 日本貿易政策의 一大轉換期에 迫하얏다하야 商工省에서는 外務大藏兩關係者와 協議한後 來六十五議會에서 日本의 對外貿易을 統制하기 爲하야 對外貿易管理法案 輸出組合法의 改正並 工業組合法의 改正 報復關稅制度에 關한 法案 三大貿易新政策을 提出하기로 決定하고 그 通過를 俟하야 最近의 新貿易情勢에 對應하기로되엇다. 그 內容은 如左하다

一、對外貿易統制法의 制定 海外諸國과의 通商關係及貿易特殊事情에 基하야 日本의 特殊物品의 輸出又는 輸入을 制限或은 禁止할수잇는 新法規를 制定하는것으로 이에 依하야 輸出工業兩組合의 運用의 完璧을 期하려하는것이다

二、現行輸出組合法及工業組合法의 改正

가、輸出組合法의 改正 從來 輸出組合의 設立은 當業者의 自由意思에 드는바 이것을 必要에 應하야 政府의 權力에 依하야 强制設立을 命할수 잇도록 改正할것 各輸出組合에 對하야 政府가 必要한 事項을 命令할수 잇는 條項을 새로 加할것이다

나、工業組合法의 改正 産業統制를 强化하야 間接的으로 輸出統制의 實을 擧할수잇는 條項을 새로加하라하는것이다

三、報復關稅制度의 確立 世界各國의 關稅障壁에 對하기 爲하야 關稅制度上 大藏、商工兩大臣이 機宜의 處置를 速히 取할수잇는 方法을 確立할것 卽主務大臣에게 關稅裁量權을 與하려하는것이다

그리고 此等의 法規運用에 具體的準備로서 商工省은 左의 方法을 用하려한다

一、一般的、基本的、全國的의 輸出組合을 設하야 그組合下에 各會社別 事業別로 各組合을 設함

二、但特殊事情例컨대 近東 알젠틴 羅國、英本國等에서는 特히 市場別로 (各輸出商人을 網羅한) 輸出組合을 設함

後任駐米大使 杉村、齋藤兩公使有力

【東京電話】 現駐米大使 出淵勝次氏는 十四日 午後二時 橫濱入港하는 淺間丸으로 歸國하기로 되엇으므로 廣田外相은 出淵大使로부터 루즈벨트米大統領의 對日政策等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를 聽取하는 同時에 同大使의 辭意를 容認하야 駐米大使後任에 對하야서도 同大使의 意見을 聽하기로되엇다 그리고 駐米大使의 後任에 對하야는 廣田外相으로서 一、常駐大使는 一時的인 親善使節과 달라 煩瑣한 外交事務를 秋毫치안으면 안될것 一、對米關係는 一九三五年의 次期海軍會議뿐아니라 恒久的 重要事라하야 어느 點에서 少壯有爲의 人物을 拔擢하야 恒久的駐米大使로하게할것 等의 諸點에 對하야 考慮하는 中이므로 大使에는 特別한 支障이 업는限 前國際聯盟事務次長 公使杉村陽太郎氏 乃至 駐蘭公使齋藤博氏를 任命할가 하는 意向에 傾하얏는바 外務當局及軍部方面에서는 齋藤公使를 推薦하얏다

自宅을 學校로 단지 一個年에

中學을卒業한다

諸君이 中學에 가지 못하면 中學이 諸君에게로 出張함

▲어데보다도 卒業이 第一 速함

▲어데보다도 學費가 第一 廉함

▲內容이 아조 새롭고 알기 쉽다

中學講義錄도 世上에 여러가지 잇지마는—

우리는 단연코 이 講義錄으로 定햇읍니다

◇小學校를 卒業한분 千萬잇지마는, 不幸히 家庭의 事情으로 上級學校에 못가고, 곳 實社會로 나가는 사람과, 곳 家庭을 보는분도 만타. 이러한 有爲한 젊은이가 小學以上의 工夫를 繼續치못하고 헛되이 해를 보내는것은 當人을 爲하야서만 아니라, 新興本을 爲하야서도 슬픈일이다.

◇今日의 實社會에서 成功하라면, 到底 小學卒業만의 學力으로는 不足하다. 아모래도 中學卒業程度의 知識과 頭腦에 너어두지 안으면 生活까지도 不安定하다 軍人이 되거나 官吏가 되거나 官費學校에 들어가는데도 中學卒業의 學力이 必要하다. 實業家가 되거나 新聞雜誌記者가 되거나 藝術家가 되는데도, 中學卒業의 學力이 업스면 決코 大成치 못하는것이다.

◇더구나 家庭事情으로 中學에 나가지 못하고 希望이라 할까 오르면 煩悶하고잇는 사람은 어쩌하면 조흘가 거기에는 이번 文部省改正中學校令에 依하야 새로된 大日本通信中學의 最新中學講義錄을 읽는것이 第一 조타. 中學講義錄은 世間에 만치만 이 文部省改正中學校令에 依하야 最新의 學校組織으로 된것은 一年의 特急스피―드 『最新中學講義錄』을 두고는 他에 업다

◇入學하면 每月二冊씩 講義錄을 配本하고 따로 趣味 깁흔 機關雜誌 一冊과 極히 有益한 參考書 一冊을 配本하므로 每月 四冊 配本이 되고 自宅에 잇서 中學校에 通學하는것과 조금도 다름업시 工夫가 되고 게다가 단지 一年으로 中學을 卒業하는 組織이다 一個月 四冊配本한다하는 新式敎授法은 스피―드時代에 適當한 理想的 組織이니 업다

◇學科目은 左와가티 新中學校令에 依한 中學正科를 網羅하얏다

▲修身 ▲英文讀 ▲幾何 ▲公民科 ▲英文法 ▲三角 ▲國語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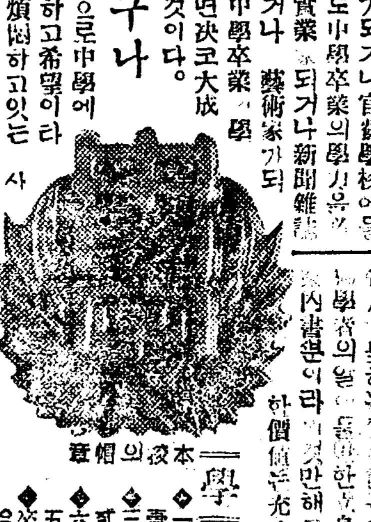
이 『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 아직 他에는 絶對로 업다

◇各科講師는 實際로 中學校專門學校의 先生으로 實際敎育의 體驗으로 講義는 平易親切하야 아모라도 알게되고 各卷이 다ㅣ 鮮明한 挿畫 寫眞 圖表를 만히 너허서 참말재미잇게 工夫가 된다

◇學費는 講義錄二冊 機關誌一冊 參考書一冊 計四冊을 每月 四回보내 一圓이라 하는것은 實로 學費에 窮한 獨學者를 爲하야 생각한 奉仕的 廉價가 아니고 무엇이냐

◇奬學金 이우에 奬學金의 制度가 잇을뿐아니라 學生相談部를 設하야 工夫上의 質問으로 一身의 相談까지 하는等 親切을 다한것이다 每月本學에서 발하는 參考書는 어느것이든지 獨學者의 一身上의 出世에 必要한것만 案內書뿐이라 해도 學費의 價値는 充分하다

▲學費 ◇一個月分… 壹圓 ◇三個月分… 貳圓九拾錢 ◇六個月分… 五圓六拾錢 ◇卒業까지… 拾圓八拾錢



本校의 制帽의 章

[illegible] 無料 [illegible] 漢和辭典 [illegible] 大特典이 잇고, 在學中에는 [illegible] 無料로 本校의 講師에 質問하야 不可解의 科學을 가르치는 等 他에서는 絶對 못볼수 업는 特典이 잇다

◇卒業後 는 本校卒業生名簿에 永久히 登錄하야 가지 特典을 주어 一生의 相談役이 되고 其他 立身就職과 成功의 길이 無限히 열리며 不況에 就職難! 의소리를 하는 世上에 알고마음대로 여러方面에 就職成功할수가 잇다.

新學期開始 學生大募集

獨學靑少年諸君은, 지금이야말로 躊躇말고 이 『最新中學講義錄』에 入學하시라 機會는 두번오는 법 업다

獨學立身案內書つき 見本無代進呈

葉書로 『最新中學講義錄見本入用』이라고 써서 左記로 寄別하면 一冊 無代進呈하오. 생각난때에 지금곳 葉書를 띄시오。 —이 기회를 버리면 後悔할때가 잇을니다 入學하고 안하는것은 나중일이오 本만이라도 곳 모아주시오—

東京市小石川表町大塚

大日本通信中學校

本報特刊을教材로 夜學兒童에게授業

異彩잇는兒童欄少年小說을利用 寧邊永恩夜學서採案

【安州】 녕변군독산면룡흥동(寧邊郡獨山面龍興洞) 영은야학(永恩夜學)을 게시하고 칠년째이며 문에 력사가잇 칫년과 남녀아동들을 교 고 또아동들을 위하여서는보 칫년차홍준(車弘俊)씨등유 윤중인바특히본보특간을교 중학교입 이학년생이일글 지칫년늬의 왕긔로 룡존 재참고용으로 채용하기로 수잇 는우리차지」에 또사 문맛을 퇴리코저 영사야 하엿다한다 특간은일반 가 오학년생도가 자미잇게읽을수잇는 소년소설가튼것이잇서여러방면으로 만흔참고가되여잇슴으로 야학생들도 무미간조한교재보다는 본보 특간에의하여 새지식을 엇는것을 대단히깃버한다고한다 이에대한 야학당국자는 그날그날새로도착되는 신문을야학생에게 보여주는것은무선야학생에게 새로운감흥을주는 그것이 첫재효과적이고 장차는 착실한신문독자를 만들어 세제의 신지식을 널리흡수할터를 닥거두는것이 또한 반가운일이라고말한다

反滿首領王德林

華東共和國建設을劃策

四個民族을主體로組織하고자 蘇聯과連絡하야奔忙中

【奉天】 길림(吉林)에 잠복중인 반만항일군의 수령왕덕림(王德林)은 『렬국의추세와 인민의총의에의한다』하야 만주에화동공화국(華東共和國)을 건설하고자쏘벳트와 밀접한련락을취하고잇는 조선군과몽고인(蒙古人)과공모하야 건국을목표로 암약을계속하고잇다는데 건국된때에는문호개방(門戶開放)은물론 주체(主體)는 만 중 로 조 (滿中露朝) 네민족의합작을긔초로할것이며 이것의축지책으로서 천진(天津)상해(上海)에 다수한선전원을 파견하야 북중국의 동지와긴밀한련락을취하며 일소시국의악화를 긔회로일제히분긔하고저제반준비에분주하다고한다

梁瑞鳳活動開始

蘇聯側과握手코자

◇部下五名을蘇滿國境에特派 朝鮮○○軍도合勢劃策

【奉天】 환인 흥경 (桓仁、興京)등지에 근거를 두고잇는 조선××군 총사령 량서봉 (梁瑞鳳)은 오래전에각중대장을신임시킨바래세력의확대강화를목표로군자금(軍資金)을모집하든바 최근에는 일소(日蘇)관계 악화를예상하고 북만방면으로 진출하야 쏘벳트로서아측과 악수하고저 부하 리춘산(李春山)이하 다섯명을 서발하야 쏘벳트국경방면으로파견하엿다 또사천(泗川)과북평천진(北平、天津)방면에잇는 조선××당도 량서봉일파의 ××군과 련락하야 만철연선일대의 각중긔관의 파괴와 암살대를 조직하야 일만요인의 암살을 계획하는동결빙긔(結氷期)를앞두고각종획책을 진행중이라고건한다

大邱瓦斯 府에서經營

대구부(大邱府)에서는와스사업을부에서경영하기로내정하고 미리부터 조사를 진행중이엇든데 대체로장래부의 재원으로서 적당한 사업이라는 견지에지난번다하부윤(多賀府尹)이경성에 와서 총독부와 체신당국의량해를구한바잇서 제일기계획을명년도예산에 게상하기로 되엿다

問題의製鍊所

明年度에二個所設置內定

금산(産金)지대의각방면으로부터관립제련소 (製鍊所) 설치에 대한요망도만코 또당국에서 극력노력하고 잇든산금 장려정책을수행하는데도 필요하다하야총독부광산과(鑛山課)에서는금년 여름이래 제련소설치문제를 조사연구중이라 함은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최근그조사연구를 마치고명년도에 삼개소를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편상하여보앗스나 재무당국의 예산관계로 최근결국남북 조선각일개소식설치 하기로내정 되엿다한다 최초의 예정지이든중에 함경도방면만은 래명년으로 미루고 조선제일의 산금지대인 평안북도에일개소와또전남(全南)전북(全北)충남(忠南)등삼도의산금을제련하기위하야는전라북도에 일개소설치될터이라는데제련소설치후보지는 평북은신의주(新義州)선천(宣川)등이고 전북은 군산(群山) 리리(裡里) 등이라하며 또진남포(鎭南浦)에 잇는 일본광업회사(日本鑛業會社)의 제련소에는 총독부에서 긔술관(技術官)을 파견하야 일반제련자의 청부(請負)제련을 감독하게할터이라한다

京畿道管內學校 年末賞與十五割

경긔도학무과에서는관내공립중초등학교직원에대한『보나스』는지금을계정하고 각기서명서를 발송하엿다는데 직원총계 이천일백여인에대하야 이십칠만 사천원을지급하게되야 한 사람씩큰 일백삼십일원되고 특별십일원차지원가지어며 그총은작년과동양십사오할정도인데 현금은 십오일에지급하게되엿다한다

多數被告는 事實을否認

◇奉化事件續行公判

【大邱】 속보=지난십일일김봉호(金鳳鎬)김계동(金季登)등 두사람만의 사실심문으로 끗친마천경북영주봉화(榮州奉化)등지공산당사건의 속행공판은 십삼일 오후한시부터 계속개정된바 피고들은 대개사실을부인하야 경찰서에서 써노앗든자필시말서등도 ××에못이겨 썻다하야 재판장의심문에 일일히부인한바 동일곱시반까지에 이르러 겨우 영주지방일곱명 피고만을 끗짓고 남어지봉화의 피고다섯명은 십사일에다시 계속공판키로폐정하얏다한다

崔鵬鶴은 一審대로求刑

광산로동자를 선동하야광산투쟁위원회(鑛山鬪爭委員會)를조직하려다 채조직도하지못하고 검거되어 청진(淸津)지방 법원에서 징역이년루개월의 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한 함북경성군주을온면 오류동 (鏡城郡朱乙溫面五柳洞) 최붕학 (崔鵬鶴)에 대한 공소 공판은 십사일 오후경성 복심법원에서 개정되엇는데 이등(伊藤)검사는일심판결대로 구형하엿다 판결은 오는이십일일이다

『푸로페라』에 다리가부러저

新義州飛行場에서

【聯合新義州電通】 십삼일오후두시사십분신의주비행장을떠나서봉천(奉天)으로향하는만주국항공회사려객기 (旅客機)가출발하려고하야 『푸로페라』를틀리던리건창 (李健昌)은 그만잘못 『푸로페라』에 부대켜서 두다리가골절이되여 곳도립의원에 수용되엿다 이로인하야려객기는 당일은결항이되엿는데신의주비행장개설이래최초의춘사라한다

少女가就職을 警察에와依賴

십사일 아츰일한시경에 본정서(本町署) 보안계에는 취직알선을부탁하여온처녀가잇섯는데그는련천군중면(漣川郡中面)에본적을둔 편아기(扁阿只)(十六)로서집이 가난하야 일즉이 열두살에부터함흥(咸興)엇던사람의 집에가서 아이를 보아주고잇다가하로부모와 형제가 그리워서 이달초닷새날 표연히고향으로 도라와보니 일가는 모다떠나고 그어머니만 서울어느 려관에서일하고 잇다는사실을 아러다 그는어머니의주소를적은편지봉투를가지고 그리운어머니를찻나보려고상경하기는햇스나원수의 편지봉투를 그만중노에서일허버렷다한다 이리하야 어머니가 산다는 서울에오기는 햇서도어머니를 맛날길은업고 할수업시 본정서에 차저와서 울면서취직이나 식켜달나고간곡이 부탁한것이라한다

博士五名을收容

學位賣買事件으로 大學當局은對策講究中

【長崎長崎通話】 장기의과대학(醫大)에서 돈밧고 박사학위팔엇다는 사건으로 지금까지취조를밧고 형무소에 수용된것은 장기시내에서 가업의사로 다섯명이엇다 십사일 동대학에서는 교수회를열고 대책을강구중이다

教員事件取調中

南海前衛同盟事件綻露

三名은釜山署에서取調中

【釜山】 경남적색교원로동자협의회(赤色敎育勞働者協議會)사건을 취조하는중에서 또다시 중대한 비밀결사사건이 탄로되야아즉것 사건의검거의 손이뭇치지아니한것이잇다 그는 남해공산운동자 전위동맹사건(南海共産運動者前衛同盟事件)으로서관계자중에는 교원사건에 관련잇는한린식(韓麟植)(二三)을비롯하야 박태권(朴泰權)과 박종환(朴鍾丸)등으로 그들은 방금 부산서에 류치하고 취조중인데 주로공산운동의 자금조달과 전위동지획득에 활동한 모양으로 사건의 진전은자못 중대한모양이다

紊亂한學生風紀

某高普正服學生들이作黨하야 『通學하는女學生을『히야까시』』

當局은徹底肅淸方針

일로(一路)수양(修養)의길을밟비더듬고잇스면 가장 순진하고 착실하여야할 학생의 몸으로서 당당한 교모(校帽)와 교복 (校服)을몸에걸고도 도색(桃色)의 밤거리에 출몰하며 혹은근래도시의 찬란한표면에 현혹하야범죄의구렁에 스스로 빠지고마는 일이 빈빈하야 그것이사회의이목에 걸릴적마다 극도로일반의 한심을사서 학생풍기문제는 거진 주기적으로 이러나는 우리사회의 질병에라도 비길숙제가 되여잇다 그중에서도 남학생들이 녀학생들의 연약한 체질과 유순한 성격에 대하야 일종의 경멸을가지고 등교의도중 혹은외출의길에서 함부로녀학생을 히야까시하는일은 가장 미워할 행사의하나이다 여기에 남학생들의 이러한불미한태도에대하야 단연 녀학생의자존심을 옹호하고 이러선어린녀학생이잇다 그는시내 봉익동 (鳳翼洞)십번지 모녀자고보삼년생 한영애(韓英愛)(十七)로서 아침저녁으로학교에가는길과오는길에 묘동례배당(妙洞禮拜堂)압플지나려마다 부근에사는 시내 모남자고보 생도세명이 기다리다가는창피할히야까시를할항부로한다고한다 이에그는 이들중학생에대하야 엄중한설유를해달라는 격렬한설유원을 소관종로서(鍾路署)에 제출하엿다 동서에서는 이는 학생의신분으로 이우에업는자미업는행동이라고하야 곳런기세중학생은 호출하야 엄중히설유할것은 물론그들이 재학결과잇는 학교당국에도 다시는 그런일이 업도록엄중히 취체하도록 경고하는 한편으로 관내의 각파출소에대하야도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퇴교시간마다 철저히경계하도록 명하야이러한 불미한행동은 근본적으로 숙청하리라한다

玄米四十俵 貧民위해提供

시내황금정(黃金町)삼정목삼백사십사번지유풍상회(裕豊商會)에서는년말을당하야빈민에게난호아달라고현미사십가마니를본정서(本町署)에기부하엿다

달콤한盜賊놈!

前後十二回砂糖만훔처파라 龍山署員이냉큼잡어

고양군공덕리(高陽郡孔德里)에 사는김경복(金敬福)(三二)은 가족칠팔명이나 되면서 직업이 업시 지남으로 소관 룡산경찰서 사법계원이 수상히 녁이고 취조하엿더니 그는 시내욱정(旭町)일백구십삼번지 남목미사랑(楠木瀰四郎)상점창고에서전후열두번이나침입하야간직하엿든 사탕을 이십관이나도적하여다가 소매점이나 길가는사람에게 팔어먹은 사실을자백하엿다고한다

仁川近海서 帆船二隻顚覆

◇一名은溺死

【仁川】 황해도해주(海州)군 송림리(松林里) 대수압리 (大睡鴨里) 리말광(李末光)(三一)과고심선(高甚善)(四二)김종신(金鍾臣)(三一)등세명은 리말광의 소유목선에다가 연송셥든가랑을 싯고 지난구일 오후열시경에 옹진군룡천면도화리 (甕津郡龍泉面桃花里)압바다를 지나 진고 수압리와소수압리 (小水鴨里) 압중간바다를 지나든중 풍랑을 맛나 전복되엿는데 대마총인천빈전감조 (濱田勘助)의 소유인 빈전환 (濱田丸)이 그부근을 통과하다가 전긔선원세명을 그배에 구제하는동시에 깨여진선체를 엇을고 십이일 오후다섯시경에 인천에입항하엿다 손해는선체사백원과 연송 삼십원이처를 합하야 사백삼십원이라하며 당지자선회에서는 구제된 그세명에대하야 의복을구급하엿다

◇십일일 오후다섯시 경에는 충남 당진군석문면대란지리(唐津郡石門面大蘭芝里) 서방해상 약칠해리되는지점에서원본적선한척이 또한전복되엿다 그배의소유자인충남서산군대산면삼길리(瑞山郡大山面三吉里)박성암(朴聖岩)(三六)박재성(朴在聖)(三二)과선재두명은그배가전복되자 바다에 빠저 험한 풍결에이리저리밀리워 단니다가 마침그방면을 통과하는 어국환 (御國丸)이발견하고 곳선원이명과선재일명을 구제하엿다 선재이명중 방(方)씨라는 당년십칠세된 소년은 그배안에서 허둥지둥하다가 전복된그배와함께 풍랑에 밀리어 어데로떠나고 말엇다한다

白米열가마니바람에 팔린다!팔린다!

歲末風景 第一景 鐘路네거리

小商店側의合勢對陣에 大商店側은散兵戰

▲……박석(薄石)우에부서지는느진햇볏도애처롭다 저므러가는 이해의거리 거리에는『인플렌』경기『보더쓰』경기에춤추는 손님들의마음을 이끌려는 세모대매출(歲暮大賣出)의크고적은 붉은기빨이 거리에백백하게차잇서자못활발하게 펄럭인다

× ×

▲……파라케빨가케가지 각색으로 새로칠해진간판과간판들은살을 찍는듯한추위를 무릅쓰고도 거리에넘치는사람의물결, 일년동안의 매상고 (賣上高)를단숨에 쓰러올리려면바로이한때뿐이라는드시년말상업전선에퍼는 공격진(攻擊陣) 방어진 (防禦陣)은자못눈이부시다 경쟁권은 바야흐로 백열화하고잇다

× ×

▲……그진두(陣頭)에 나선것은 역시종로일대의 상계를 『리-드』하는총본영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다그래서 당당하게 일등에백미(白米)열가마니의경품을 걸고 그뒤를아래잇는 일백이십구의 상점들을원식혀 경쟁전선에 모라보내고잇다 상점단독으로는 백화점 화신을 비롯하야 다섯개소에서 역시경품을부치고잇다

× ×

▲……이리하야 각상점의 장부의매상고는 오로지상승선 (上昇線)을더듬음으로서 종로일대의 전두와전두에는 갈차이활기를띄고잇다……(사진은종로네거리)

離婚하고십허 안해에陋名씨워

안해는되려男便의醜狀을發表 ◇覆審에서控訴棄却

남편은 안해를 시부모에게볼료하고또 다른청년혹은 사각모자쓴학생들과 한강(漢江)혹은북카페가튼데에 밤낫으로놀러다니고또는 비밀히 련애편지를주고받고한다는것을 리유로하야자녀가 둘이나잇는 어엽븐젊은 (스물세살)안해를 리혼하려하고이에대하야 안해는 결코그런일이업고 남편이 다른돈잇는집 처녀와비밀히 정을통하야 약혼을하여노코 그색시에게 졸려서 공연히 허무한사실을 꾸며서하는짓이며 또는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을 준비하고잇다는 미명으로 기왕에도 모전문학교출신녀자와 기타수명에게 관계를 한일이잇는 색마(色魔)라고 반박하는등으로 리혼할수 업다고 법정에서 서로 다투어오든 시내 례지동(禮智洞) 강진국 (姜辰國) 과그의안해 김명희 (金命喜)사이의리혼소송은 일심에서원고인 남편이 패소하엿는데 다시공소하야 경성복심 법원에서 오래동안심리중이든바 십사일에 공소의리유가업다하야 결국공소 기각 (棄却)의판결이 버렷다 법률에서는리혼을 판결하지 안햇스나사실에잇서서는 그들은 벌서부터 헤저살고잇서각거하고잇다한다

妓生과자다들킨郡吏 免職怯나巡査를誣告

覆審서一審대로求刑

기생과가티 잠을자다가 순사에게들켜서 밀매음취체로 경찰서에불려가서 취조를당하고 그것이 만약자기가 근무하는 군청의 군수에게 알려지면 면직될가우려하야 터무니업는 순사의비행을꾸며가지고 충남경찰부 장에게투서한것으로 말미아마무고죄(誣告)죄로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 징역루개월의 판결을바든 원 충남연기군삼림주사보(燕岐郡森林主事補)홍남표 (洪南杓

鐵道從業員養成所 本科生募集을廢止

철도국종업원양성소본과생은매년삼월에 선발시험을 보이고입소시켯는데 금번철도국에서 방침을변경하야 일반학교의 졸업생을채용후 적당한 시기에단기강습을행하기로되여소화구년도부터는 일반의모집을 폐지하기로결정하엿다 따라서 현재의양성소는소화십일년삼월로서폐쇄될터이다

『라듸오』聽取者增加

체신국(遞信局)의조사에의하면 『라디오』청취는 점점 증가해가는추세에잇는데 십일월말 현재의전조선『라디오』청취시설허가수는 총계이만팔천 이십일명인데그중에 조선사람은 오천일백십일인이다 전달말에비하면 륙백칠십명의 증가다

義城『스포ー츠』事件 三名은豫審廻付

◇其他는모다釋放해

【大邱】 지난사월송국되엇든 경북 의성(義城)적색 『스포츠』사건은 그동안 대구지방법원검사국주정(酒井)검사의손에취조를 받든바 십삼일마츰내 관계중 막사과공산대학출신 오기수(吳麒洙)와 오병수(吳丙洙) 김규복(金圭福)등 삼명만 긔소되여 예심에회부되고 남어지십구명은 기소유예(起訴猶豫) 기타는 불기소또는 기소중지가되어 전부석방되엿다

今夜에迫到!

延專經濟講演會 下午六時公會堂에서

긔보한바시외연희전문(延專)경제연구회(經濟硏究會)주최의경제강연은 금십오일밤 여섯시반에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공회당(公會堂)에서 개최하는데 연사는 사계의 권위량씨로 연전교수(延專敎授) 로동규(盧東奎)씨와 본사 고문변호사(本社顧問辯護士)인 신태악(辛泰嶽)씨임으로서제에 뜻을둔 이들의긔대가큰바이라 하는바 연제는아래와가트며 특히장내정리비(場內整理費)로 오전식을밧는다한다

一、法律과經濟 辛泰嶽

一、世界經濟의新階段 盧東奎

사랑을차저서

아해업는서름을 누구에게하소연하리요

모도가 부인병이 원인 엇지하면 집에서곳칠수잇나

여러분은 하나가고 둘가는 곳업는한숨을쉬이십니까 하로날에 엇재 파리한얼골을 는 흰자게이려서나가는우리나라 의어머니가될분이며 평화한가 정의주추가될수잇는 분으로서녀성 만이가질수잇는어엽분차지와임 술에생긋이 떠위지는우슴을이 러버리시엿다면 엇더케 그를 당하여 나가실수잇겟습니까 그를 녀자의미덕으로 피로움을남 에게숨기고 말하기에얼골붉어 는시어는아니될것입니다 자기의 서름은자기가 제일잘아는것갓치 래서는 벌서지내엿스며또그 건강에서 그괴로움을자 기가 더잘알아서 그의책임을자 나오는것입니다

부인병이란무엇

대부분의녀성은부인병의고통 을맛보시고게시나 그것을남자 와갓치 입밧게 안이내는데모도 가만성으로되는 큰폐단이잇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아무분이 라도녀자면이런증세가잇거니하 고 고통을참아쓰라린세월을보 내시는것이니 이러한분이 마나만슴니가 여러분 출가하 여 시부모님편 시종에곰볼하 시는여러분중에 이런증세로고통 하시는분이안이게 십니까?

◇김기에걸니기쉬운분
◇두통상기현기가나는분
◇월경이고르지못한분
◇월경이아조업스신분
◇월경때이면몸이몹시압흔분
◇월경이외에출혈이잇스신분
◇대하증(소위냉병)이잇는분
◇수족이냉한분
◇혈색이납부고청미가급한분
◇허리와아래배가압흔분
◇가슴이두근거리고숨찬분
◇국부가붓고압푸며 가렵기도하고오줌이자진분
◇산젼산후에쇠약하시는분
◇태중에게신데구역이나는분
◇산요열(褥産熱)이잇스신분
◇유산(流産)난산사산하시기쉬운분
◇가슴아리가생기며『젖』이되야구미가업거나 변비증이게신분
◇부부화합에자미를모르신분
◇건강히보이고도아해못배는분
이런증세가잇스시다면 곳병근을잘살피시고 치료방법을강구하시와 남과갓흔행복을어드 시게노력하십시요

집에서 곳칠수잇나 엇더케 손쉽게

무슨병이라도 환결고에는심 해집니다마는 근래와갓치치위 오는때에는 부인병의고통은더 욱심해질것입니다 색동은나무 지혼들께마다 오스르추어오는 몸에는감기에걸니기쉬우며 회 생입는얼골에양볼이붉어지고두 통이나는분은 벌서부인병의초 기임을증명함입니다 또겨울차 리의혜내나김장 또는다드미를 하신후에몸시아래배나허리가압 흐며 손발이찬몸에몸소리침만 는 더욱부인의한한탄을듯기게됨 으로중하게되시기전에하로밧비 치료하여야 되겟스나 그것에 는조혼약과적당한조섭이필요합 니다 마는무엇보다도그환자자

또잇스리요!『명지모』에는경증이든 중증이든 보통환자모 ……

(지모) 쓰는 보통환자모

(시용분四十一원六일 분一원十三일분三원二十五일분五원) 十일분三원三十五일분五원 한약으로된『명지모』(五일분一원十一일분二원十七일분三 원)와자복엽은분또는증의정 에에(따라각호별로된가감명지모 원)이잇스며『대하증』을 외부로 곳치고국부의압품을게어하는 『오기나구』에도경증용(시용분 四十전八일분一원十七일분二원 廿七일분三원五十일분五원)과 중증용(본방오기나구)(七일분 二원十一일분三원廿일분五원) 의별이잇스며 병구를다스려행복의주 이온대 송료는四十二전 수를하실여러분은 조금도주저 마시고하로밧비東京市京橋區入 船町三 笹岡省三藥房(振替口座 東京五〇五〇番) 에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본보독자 여러분에

본방에누륵히 『조선의문부』 가잇서 조선국문으로자세히병의 원을통지하시면 각권문의사가단 당하야일일히대답하며최신의치 료방법을알여드립니다 약을 쓰시든지아니쓰시든지 그런엽 여마시고여러분의가정의원이라 고생각하시고문의하시와 건쾌 의길을차즈시기를바랍니다

또이記事를朝鮮日報에서보섯 다고하시고통지하시면 어느가정이라도꼭한권식잇서야 할의생지식서류부인병상식책(젼 와남편되시는분의참고서류『명 지모·오기나구』의 효능임슈 장사진롱은만재한귀중한부록 는분에게도거저드림니다 (약가 사진은北海道庶務部長東京市小岩 의사진은부인의권하기쉬운시 모』와『오기나구』를사용하시어 업습을신세라령하시다가『명지 련패하시고잉레하야어도산권훔 자입니다 깃분實例의하나이 그것뿐을 여러분이길이계시면 바랍니다)

『명지모』는 화한약의진미 만조합하야 동양사람의체질에 맛도록맨드는것이며 더욱이우리 조선부인의체질과풍습과습관에 적당한것은물론 과학적인『영지모』의영효에대하야서는 더말할것도업겟지마는 삼포 하산 복사 원중 이등의의사 박사의실험증명이래로 세상에 퍼진지십년여년동안에 고질의 부인병이 쾌유되시어귀동자를어 드신분 수출의고통에서버서나 명을나신분자 웅천의고통이 려가신분의 수만은 찬과감사의 시고부부화합의행복한생활에드 의정은 이론헤아릴수업사오며 환정은 가부인병치료판만안 『명지모』 원형건 가 물론 해진신흥소와 산전산후에 이 니라 월경전후의 괴변도 여 은 『구세주』 가됨에는더욱 명념이되오며 또한녀성의미용 모의건강파래아의 건권을위한실 이회생 중요되는안을것이 란복안이할수업는시비 실에 를시복하며보시면아실것이지마 는복약후곳낫타나는각효와곳곳 해지는팔다리회색도를얼골 아픔이게여가는데에

極度의生活難으로 愛子를殺害密葬

事實의綻露로 突然發狂

細民生活의悲慘事一齣

【平壤】 극도의 생활난으로 사랑하는 자식을죽이여 밀장햇다가 발각되자 실신하여날뛰는 가련한녀성 대동군림원면 남사리 삼신동한광(大同郡林原面南四里三神洞漢光) 항부 김광련(金光蓮)의처 리숙자(李淑子)(三三)는 사랑하는 영아를자기손으로 죽여 부근산가운데밀장햇든것을 대동서에서 탐지하고십이일밤 동녀를 검거취조중이나 목을노아 울분으로 입을닷든고 죽이엇는것을 말하지안는다는바 부근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극도의생활난으로 죽인모양인데 극도의생활난가책으로 실어일밤 검거되여 오는도중에 돌연히 발광하여 강중에뛰여들어 자살을 도모햇스나 즉시구조되여 목하 대동서 류치장속에서 통곡하다가는 웃고 웃다가는통곡하여 완연 광인화하엿다 동서에서는 자살할념려가 잇다하여 감시중이라한다

더 말한다

◇被害者談 키는 지나간십이월칠일(음십월이십일)이우리 조모(祖母)의 문중계일임으로 참석하엿든바 나와사촌되는 동운(東雲)이와 사소한일로 말다툼이잇섯는데 권리동운이가 박게나가서 자기아들인 대하(大夏)와 그 족하인 근하(根夏)(以上假名)등을데리고와서 나를구타하려함으로 나는미리 도망하다가 그만붓들려서 무수한 매를 당한것이바 나는공정한 말을 주창한것박게는 업는데 이것이 아마잘못인가 합니다

慶南郡守府尹會議

【釜山】 경상남도각군수부윤(慶尙南道各郡守府尹)회의는 금십삼일부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게되엿다한다

羅津의大地主 自進地料減下

一般住民의稱頌이藉藉

【羅津】 당지항정(港町)이정목백칠번지는 대지주김상정(金相鼎)씨의소유지로 항청에서는 제일 중요위치를 점령하고잇는데 김씨는라진의 개항당시부터 다른지주보다 솔선하야 토지를 개방하야 일반주민들에게 가옥을건축식혓는데 항청을 중심으로도로변은 매평에삼십오전 후면은 이십오전으로 차지계약을 체결하얏스나 지료가 고등하야 몃군데는 삼십전으로 감하하야 주엇는데 이곳경기는 문자그대로 살이켜불경기임으로 일반가주들은지료의고등함을감내하지 못하겟다고 금년사월부터 지료의감하를목적으로지주김상정씨에게교섭을진행하면서이래팔개월간이라는 긴세월을두고 교섭하야왓는데 근일에와서 지주로부터 충분한량해가 잇서도로변을 이십삼전 후면은십일전, 뎌길흔 후면은구전식으로 대용단적감하를하얏스며 사월이후의 체납된지료는 전부 감하한지료로서 계산하게하얏는데 이감하를바든 사람이 칠십여호에삼백수십명이라하며감하한지료가매월사백원가량이라는 거액에달함으로 일반주민들은 김씨의미행을 청송하지안는 사람이업다고한다

請負業者相對로 損害賠償請求

治道工事時提防切斷으로 農作物에被害多大하다고

善山農民의連書로

【大邱】 경상북도 선산군고아면오로동(善山郡高牙面吾老洞) 황순득(黃順得)외열일곱명은대구부내변호사 리호정(李浩呈)씨를소송대리인으로 김천군김천읍성내정(金泉邑城內町)에사는청부업자 야촌좌태랑 (野村佐太郞)을상대로 이천이백삼십칠원십오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십삼일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긔하엿는데 리유는 원고등은 선산군고아면오로동부근일대의 전답을 소작하는데 금년륙월에 전긔피고인 토목청부업자 야촌좌태랑이가 경북도청으로 부터 부근에 련접된도로의 치도공사를청부하야 공사하든중 그압흐로는 시내의다리를 고치면서제방을 네간가량문허논채 고치주지를 아니하얏슴으로 동월십칠일에 큰장마로 방둑이 오십여간이나 떠나려가면서 탁류가휩쓸려 드러와원고등의논이 수십일간 침수가되여 농작물이전멸을당하얏슴으로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한다

自動車運轉手 醉漢을毆打致死

街路에서길안빗권다고

【楊市】 지난십일오후오시십분경양시 시세동일백 삼십칠번지압헤서 룡암자동차부 운전수 김공주(龍岩自動車部 運轉手金公柱)(三二)는 룡천군양서면북평동김영식(龍川郡楊西面北坪洞金英植)(三六)이가 술취한것을구타하여 즉사식엿다는데 그원인은권긔운전수 김공주가 룡암포에서 삼교천을향하야 자동차를 운전하여가는길에 취한 김영식외두사람이 차압흐로 달녀들어옴으로 운전수김공주는 차에서내려서 이것을케재 하얏스나듯지안음으로 따려물니치고 다시 운전하야 삼교천을 향하야가고 매마즌김영식은 그자리에 업드려저인사불성에니르렷슴으로친우들이 니여당지룡양의원에 입원식켜 응급수당을 하여스나왜여나지못하고 마럿다 급보를들은소관주재소원은 그자동차가 도라오기를 기다려 귀로즉시운전수김공주를검거하야방금취조중이라고한다

永興의低利資金 四個金組서貸付

利用은中農以上뿐이라고不平

配當總額二萬五千圓

【永興】 금년도함남 영흥군(永興郡)에 배당된저리자금액은 이만오천원으로서 이미 그대부분이 영흥(永興) 진흥(鎭興) 왕장(旺場)마장(馬場)의 각금융조합을 통하야 대출되엿는데 일반농촌에서는 이것을 리용할수잇는것은 중농이상뿐으로 이에대불평의소리가놉다고한다

金덩이에밋친사람 十餘名을또檢擧

平壤署서大密輸團逮捕

【平壤】 평양경찰서에서는금괴밀수출단을 철저적으로 검거코저 지난봄이래 맹렬한활동을 계속하여 발서 총수 오십여명을 검거송국하엿거니와 수일전또다시 대규모의 금괴밀수출단을 검거햇다 범인은부내경상리(慶上里) 원명길(元明吉)(二九)외십수명으로 금년여름이래 모방면에서 자금의융통을 바다가지고 평양부내에서 금괴를사서 안동현에 밀수출하든것이 판명되여 검거되엿다 자본을 제공하든자는 행방을감초아 목하수사중이며 취조의결과 밀수출량은 삼관이상에달햇스나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관계자도십수명에 달하는터이다 그러고그들은밀수출로 이를남기어 세집에서양옥에들어 호사한 생활을하고잇는터이라한다

小農에 農糧貸付決議

鎭海邑議會에서

【鎭海】 경남진해읍(鎭海邑)에서는 지난팔일오후 한시에동읍회의실에서 읍의원회를 개최하고 농촌구제급 미곡통제 (米穀統制)의한시설로서 경남도비를 무리자로차입하야 읍내소농가에 구년도부터 이십년간매년 삼월에 대부하야 십일월에회수키로하고 매호에정조한석식 대부하기로 결의하엿는데 리자는 일할이부로서 대부총액은 팔백구십원이라한다

鐵原葛末面下에 覆面强盜出現

結局所得업시逃亡

【鐵原】 지난십이일새벽한시경철원군갈말면동막리 (鐵原郡葛末面東幕里)구백칠번지 안교달(安敎達)(七七)의집에단도를가진복면강도두명이침입하야사랑에서자든주인의아들을결박하는동안에안에서자든주인은눈치를채이고 담을넘어박그로 도망하자 복면한괴한한명이 단도를들고 안으로 들어가서주인의처에게 위협하며 주인을차저노흔지 돈을 내든지 하라고강요하는사이에 박그로 도망하엿든안교달이가 북이야하고 소리치며동리사람을 깨이매 사세가불리할것을 짐작한 괴한들은아모소득업시어대로 도망해버리엿다 한다 이소식을 접한 소관철원경찰서에서는 다수의 사복경관이현장에 출장하야 조사한후수사망을 느리고엄탐중이라한다

門楔에서言爭타 六寸兄을毆打

被害者가告訴提起

【黑橋】 지난십이월팔일오후 인제의원(黑橋醫院)에는류혈이 랑자한 참변한사람이 들어와서 치료를맛고 사주일치료의 진단

地方人事

▲趙熙衍氏 十二月十一日午後六時尙州邑自宅에서遭內艱

▲洪應裕氏(瑞山常春醫院長)今般京城에서瑞山으로位置移轉 人事次十一日本報瑞山支局來訪

雲峴宮의봄

金東仁 作 / 李承萬 畫

二十의七

군포(軍布)라 하는것이 잇다

첨정(簽丁)— 지금 이름으로는 徵兵)은상민들의의무처엿다 상민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첨정에 응할 의무가잇섯다

먼저 군적(軍籍)에 등록이 된다 그런 뒤에는 붓들리어 가서 병대에 복역을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한 집안의 장정이 첨정에 나가게 되면 그 뒤는 그 집안에 호구지책이 업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모면하는 방책으로 一정한 세납을 관가에 바치고 피하는 것—말하자면 첨정 모면비가 군포—다

군포는 뵈 두필이던가 돈 녁냥이든가 쌀 열두말이던가

이러한 것이 원제도엿다

그러나 첨정의 제도에는일생에 한번 이라든가 일년에 한번이라든가 하는 제도가업섯다 — 이점을 악과들은리용하엿다 그집안에 돈냥이나 잇는 백성이면 一년에도 두번 세번씩 첨정에 너헛다 년만이 아니엇다 처음에는 一정한 액수를 작정하여 게정한 배지만 차차 흐리게되여서 되는 대로 그 집안의 재물을 압수하여 가게가 되엿다 소고 말이고 반다지고 무엇이고를 무론하고 쓸만한 물건이 잇스면 거두어 갓다

그 우에 첨정에는 나히의 제한이 업섯다 이것 역시악관들의 리용하는배가 되엿다 늙은이나 어린애를 막론하고돈냥이나 잇는 집안에 사내라고 생긴것이 잇기만 하면 군포를 징수하엿다

무론 억지로라도 피하려면 피치 못할것은 아니다 어린애게 무슨 군포냐고 억지로 거절하려면 못할배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엿다가는 이뒤에 반드시 무슨 다른 벌이 그 집에 나리엇다 그리고 그벌 나리는 벌은 군포징수에 몃곱이 되는 혹독한 종류의 것이엇다

그런지라 뒤가 무서워서 할수업시 이를 알물고 이제도에 복종하는 것이엇다 이약할이 원수라는 속담말이 이부해생겨난 말이엇다 그것 잇기때문에 이 곤경을 젹는 것이엇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수잇는대로 그집에 사내가 나면 그것을 관가에는 감초아 두엇다

놀라운 악정이다

상납미(上納米)를 벗겨 먹는다

환곡미(還穀米)를 떼여 먹는다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이 가운데서 잘라 먹는다

그 고을에 좀 낡은 정자나 누각이라도 잇스면 그것을 수리한다는 핑게로 각호에 얼마씩 거두어서 벗겨먹는다

이런 핑게 저런 핑게 핑게를 만들어 내여 가지고는 벗겨 먹는다

당시에 잇서서 가장 업적(業績)이 만헛다는 수령 방백은 가장 만히 벗겨 먹엇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엇다

한 상관이 벗겨 먹노라면 그 수하에 달린 만코만흔 속관들이 또한 그만치 벗기어 먹는 것으로서 한 상관이 십만냥을 벗엇다 하면 속관들이 먹은것까지 합하면 이십만냥은 넘을 것으로서 백성의 곤난은 그만치 컷다

이러케 오중 륙중 칠중 팔중으로 벗기우는 백성들은 이학정 아레서 허덕허덕 그들의 삶을 계속하엿다 한마듸도 크게 고함도 치지못하엿다 고함을 칠지라도 들어줄 우(上)가 업는 가련한 백성들이엇다

우으로는 삼공 륙경으로부터 아레로는 말직의 관리(賤吏)에 이르기 까지 모도 이백성을 조흔 봉(鳳)으로 너기고 벗겨 먹기만 위주하지 굽어보고 보호하여주랴는 어진 상관을못가진 이 가련한 백성들은 숨한번 크게못쉬이며 숨어백여서 그들의 가늘고 참혹한생활을 계속하는것이엇다

此際大急ぎ キング お求め下さい

新年特大號 大賣行!

五円、六円、まだ安い

玄人も驚く此の大犧牲 どうして出來るか?

不思議に非ず

「キング」なればこそ斷行出來る

大量生産の絕對強味

買はぬは全く御損です

大確信を以てお勸め致します

上製函入 五百二十頁の大書籍

新語新知識 (附)常識辭典

(實物縮寫)

便利重宝、一九三四年人必携の大名著

新聞雜誌の閱讀に宴會その他日常社交に

一册あれば絕對困らぬ!!

戰爭外交、政治經濟、運動、文學、宗教、社會、家庭、衛生、美容、社交、その他苟くも一九三四年人として知らねば恥になる、新語、新知識、常識は五百二十頁の大冊に一切網羅、問答體の記述で、スラ〳〵と面白く讀める。

此の際誰方も一本を座右に備へられよ!

(第二附錄) 西鄕南洲翁の掛軸用名筆 (縦三尺 横一尺三寸五分)

(西鄕侯爵家御秘藏)… 大西鄕が自作の詩を自書せる大幅、雄渾淋漓の快筆に大英雄の面目躍如たり。永久に家寶として傳ふべく、床間に揭げて日夕之を仰げば神氣凜然、修養の資料としても絕好のものです

(第三附錄) 東鄕元帥の掛軸用名筆 (縦三尺四寸 横一尺三寸五分)

(小笠原子爵家御秘藏)… 非常時日本の大綱を握る元帥大東鄕が、自らの座右銘を書して小笠原子に贈れるもの、元帥の大信念は脈々として墨痕に流れ、眞に襟を正さしむ。國寶的の神品であります。

(第四附錄) 橫山大觀畫伯の掛軸用名畫 (縦二尺八寸 横一尺六寸)

(御物—特別御許可)… 畏くも聖上陛下御大典に際し、畫聖大觀氏が、渾身の熱情を一管の筆に托して描き出したる不朽の名畫『扶桑第一峰』特に御許しを得て複製特呈。絕對二度と得難き國寶的の名附錄

◎本誌は堂々七百頁の大壯觀

▲三十六頁の美麗大畫報を初め、特種、大特輯、名讀物滿載

▲小說欄は日本一の壯觀、一流大家の面白い小說の特選發表

本誌と附錄と併せて壹千二百頁

その上に掛軸用三大附錄つきて 大特價六十錢 (送料十二錢)

呉々もお早くお求め下さい

書店賣切れの節は……東京本郷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へ至急御註文を

●腦의疲勞 執務讀書 工夫徹夜 等頭腦過勞時에 ノーシン 을服用하라 腦의疲勞를 頭腦가速히快復 식히는腦劑가 明快 해지며 愉快히 繼續할수잇는 安全한 腦劑 全國藥店에 잇슴 ●

十二月十三日낫부터 特別大名畵上映 毎日二回낫一時밤七時半始映 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佛蘭西社超特作品 愛國秘史 謎의人造人間 全八卷 쉬루듀•데ー란氏力演 일홈부터痛快하다 愛國의精神은 언제나떠날수업난國民의本意를 보고드르시라?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時代劇映畵 忠治와三代太郞 全八卷 阪東好太郞 飯塚敏子 大力演 堀正夫

歷史的으로낫타난이야기는豪俠한壯快의一大哀史며우리로써感激의一大亂鬪劇이올시다 松竹이자랑하는이한篇지을엇아볼수잇슬가 一大巨篇?

달맛치푸로作品 喜活劇 貧乏長者 全七卷 리차ー드달맛치氏主演

路鐘四丁目 電二七五 第一劇場

太秦發聲映畵超特作 J・O・トーキースタヂオ製作 ニッポンザンバ あらゆる動物の自然生活實寫! 敎育參考資料こして又興味滿點の豪華篇

富士發聲映畵社第一回超弩級作 原作仲木貞一 監督細山喜代松 午前2時半 劇聖九代目市川團十郞、市川紅梅 主演

永樂町一 電本局三〇四一 中央館

特望の淚の名畵!國家非常時! 敢へて全國民に此の一篇を捧ぐ (十五日間日延なし)京城日報社讚 者優待映畵 文部省推薦映畵 太秦發聲映畵超弩級作 J・O・トーキースタヂオ製作 原作 渡邊霞亭 指揮池永浩久 監督 池田富保 楠公父子 主演 早川雪洲助演澤村三兄弟 忠勇義烈孝道の本義!非常時國民必見の名畵! 見よ我等の日本健兒この壽ませぬ興味ご感激裡に說かんとする問題篇!

豫告 사마랑그暗黑街의顏役 海賊

貫鐵洞 電光九五 優美館

十二月十五日브터特別大公開!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 本版 黃昏의女子 全九卷 原作프랭그알가써라氏 監督 프랭그알가써라氏 助演 妖花바바라스탄우익그主演 悲錯한運命의飜弄에洗汲無常한女性의눈물겨운一代記! 都婦女子에게바치려한다

파라마운트會社特作全發聲映畵 監督프랭드뉴매ー야氏 싸홈商會 全九卷 스탄래이스미스氏 진자로자ー스 프랭스크므ー강氏

十二月十三日낫부터 ◆MGM特作全發聲日本版 거리의野獸 월라스뷔 主演 ◆MGM特作全發聲日本版 青空狂想曲 全十卷 主演

恩授洞 電光九五九 團成社

世界一週記 (本社特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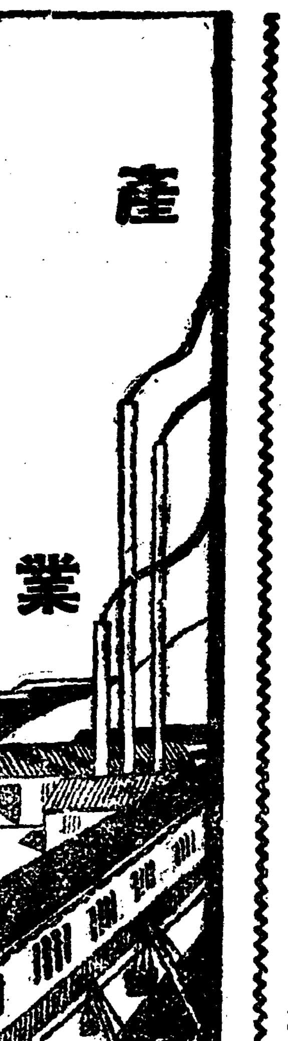
英國은女人國인가

街頭서吸煙하는女子들

(十三) 李順鐸記

也한가지 英國서 놀낸것은어대가든지 女子의 數가 男子보다 더만해보인다는것이。異常해서 엇던先生에게 다저보즉 事實로 倫敦은 女子가男子보다만타고한다 아니 倫敦뿐아니라 『리바풀』이나 『만체스타』나 大都市에는어대든지그러하다 이것은生活이어려워서 女子들이 職을 求하야 都市로 流入이되는대그네들은 男子보다 더싼 報酬로 일을하기때문에 特히 男子를 要하는일外 에는 女子를쓰는데 큰原因에잇는것이다 이點이 巴里나 伯林과 또다른點이다 巴里에서 料理店이나 商店에서 女子를보기가드물고 伯林에서는 多少볼수가잇지마는倫敦에서는 거의어느料理店거의어느商店에든지 女子店員이大部分을占하엿다 아마公共한事務所에도 그럴것이다 이때문에午後六時頃 모든事務가쉬는時刻이면 거리에쏘다저나오는사람은 大部分이女子이다 이리하야 特히이時刻이면 有名한 『옥스포드』(Oxford) 『리젠트』(Rejent)『피카데리』(Piccadilly) 等街는 고흔衣服에化粧을한 맵시잇는女子들이 『쇼‧윈도』(Show Window)의 美를 一層더돕는다 그中에도 伯林 巴里風의女도잇지마는 伯林風의女子가 오히려만타 말하자면 三分七分쯤된다고할가 勿論街女도잇스나 두려이 나라나지는안음으로 新參者는잘알기가어렵다

大體로 倫敦과 巴里의女子들은 술과담배를 잘먹지마는 特히 倫敦의女子는 담배에는 上手이다 屋內에서 먹는것은 말할것도업거니와 街上 公園 演劇場等 公共한 場所에서 男子들에게 지지안케 손가락사이에 卷煙을 끼고 悠悠히 烟氣를 吐한다 그나마도 卷煙의 빗싼것과 『쉬낭』의 빗싼것은 歐洲各國이 다ㅣ놀랠만한데 그네들은 또 남븐卷煙은 피우지도안는다 이말은 貴婦人 令孃 女學生 職業婦人의 別이업시 共通한것이다 『피존』을피면 한갑에 朝鮮돈으로 四十錢 『쉬낭』한갑에 七錢 그나마도 朝鮮『쉬낭』의半分밧게 되지못한다。이러케 빗싼것을 男子와가티 女子들도피우기때문에 英國首相『스노덴』氏가 議會에서 財政演說하는中『現在英國의 財政은 世界的不況으로 甚히減收했지마는 오즉 煙草稅가增收되여서 만흔도음을 맛는다 이것은女子의喫煙이增加한外담이라』고 喝破한것은 놀랄만한 事實이다 이女子의 吸煙風의激增은 歐洲戰爭中부터이라는대 戰爭中에 男子는 戰場에 나가서싸우고 女子가 職場에 勤務이되여서 實際的으로 女子가男子와가튼 또는男子에지지안는 일을하게됨으로부터 各方面에 갑삭이 男女平等權이 主張이되여 이喫煙하는 風習에까지影響을밋첫다。그리하야 男子의事業하는것으로女子라고 못할것이업다는 思想이 漸漸觀念이되여서 甚至於貞操方面에 이까지이르런 今日 歐洲의 女子와 朝鮮의 女子 到底히 우리의 貞操觀念으로 各하는 것으로는 比할수업는形便이다。音樂的 俱樂部 學校等의 社交『뺀스』의 風潮은 살펴볼만한일이 만으며 街上에서 男女가서로어울녀서往來하는것은普通한것도 업거니와『하이드‧파크』이나『리젠트』等의 大小公園을 가보라 男女가서로 擁抱하고 잇는것을 얼마든지볼터이니 그러나行人들은 이러한光景을보아도 關心하지나는것은 참으로訓練된 大國民이라할가 이러한 飲酒 吸煙 男女擁擁의 風習은 歐洲各國의 共通한 風習이다 中英國이 가장甚한모양이다。나는어느 公共한席上에서 旅行中에 發見한 歐洲의 奇風을 말하게될것업시 말하얏라는 다로 어떠한지안코 이러한風習을 指摘하면서 그理由를反駁 尙今 그네들은 與다同音으로否하기를 個人에게 너무 自由를 許한結果 이러한風習이 釀成되엿다하면서 조곰도憂慮하는빛이업고 오즉한 習慣으로 알어버린다고한다 朝鮮사람된 나에게는 아즉까지도 서투른 구경거리이다。如何間 社會生活에 잇서서는 한點으로나 惡한點으로나 男女는絕對同等 아니同等이라하기보다는 女子가더優越한 便에만라고할수잇다 맛치며 英國은女人國이며 歐洲의다른나라들도 이에못지가는모양이다



全朝鮮人蔘耕作 專賣局서完全統制

◇指定區域外의耕作도要許可 十二日附府令으로發布

【開城】 從來는專賣局指定區域內의人蔘耕作은 專賣의許可가잇서야하나 指定區域外의人蔘耕作은府尹、郡守、島司의許可만잇스면고만이든것이 지난十二日附府令第百三十八號가發布되여 從今以後로는指定區域外人蔘耕作도 專賣局의許可를맛타야되게되엿슴으로 全朝鮮의人蔘耕作은完全히統制되게되엿다는데 指定區域內의人蔘耕作面積은現在一百九十五萬六千坪이며 指定區域外의人蔘耕作面積은京畿道八萬二千八百坪 忠南七萬二千九百餘坪 全北二十五萬七千五百餘坪 慶北十七萬八千餘坪 慶南四萬六千五百餘坪 黃海道四萬八千五百餘坪江原道十四萬四千五百餘坪 全南二千二百餘坪 忠北三萬九千七百餘坪計八十七萬三千餘坪으로서指定區域外人蔘은 今年度에五萬九千餘坪을採掘하엿스며昭和九年度에는 七萬三千五百餘坪十年度에는二十三萬三千八百餘坪 十一年度에는二十八萬一千餘坪의採掘을보리라는데 區域內人蔘植付面積을 明年부터約二十五萬坪으로減少식히는한便으로區域外人蔘植付도 約三分一可量을減少식히리라고한다

紅蔘販賣 漸次好況

【開城】 日貨排斥으로因하야 販路가 거의막히다십히 되엿든 紅蔘이 요즘와서 그販賣數量이 漸次 늘어간다 紅蔘販賣狀況을 專賣局開城出張所에서 調查한바에依하면 昭和七年一月로十二月까지 滿一年間에六千餘斤밧게販賣하지못하엿든것이 今年一月로十一月末日까지의 販賣高는 一萬五千餘斤으로서十二月의販賣高를 合하면今年一個年의販賣高는 二萬斤에達하리라한다

開城白蔘界閑散 蔘價高騰으로注文減少 群小蔘商과仲介人不安

【開城】 今年度開城白蔘及尾蔘의製造狀況은 旣報하얏거니와 今年에는原料가어렵업시高騰할뿐아니라 人蔘同業組合이새로創立되여서製品을一一히嚴密檢查한關係로品質은 혈신向上되엿스나檢查料 紙函價가새로더들고 其他諸費도昨年보다 혈신 더드러서 單價는 昨年보다 三割引乃至四割의 騰貴를 示하엿슴에 反하야 正租價가廉할뿐아니라 南朝鮮에水害가 甚햇든關係其他의原材料로因하야 地方注文이減少되엿스며 市內聘賣가別로업서서白蔘價는 多少低落을보하엿다그러타고 白蔘製造者들이損하고 싸게팔지도안음으로 昨今의 開城白蔘界는極히 閑散하야 事業者特히 群小蔘商들은 勿論百三十餘名의仲介人도收入이激減하야不安을늣기고잇는터이라는데 이제新蔘머리라고할만한十一月의 昨今兩年의白蔘發送數量과 同期의人蔘商報(約束郵便에限함)의 發送枚數를調查摘記하면 如左하다고 한다

◇白蔘發送數量 (尾蔘包含)

開城郵便局經由

	昨年度	今年度
十月	三、三九七	二、六六一個
十一月	三、四五八	三、三三二個

開城驛經由分

昨年度	
十月	八〇四個(一四、〇四三斤)
十一月	五五四個(一〇、四九八斤)
今年度	
十月	六〇四個(八、一六八斤)
十一月	五三一個(一〇、七三三斤)

(〇)一斤=一、六斤三百匁=五〇〇斤

◇白蔘商報發送數量 (開城郵便局經由)

	昨年度	今年度
十月	二〇七、九七〇枚	一〇九、二六七枚
十一月	二三三、〇六〇	一〇〇、四四四

農林博物館 計劃進捗

多木粂次郎氏의 寄附申込에依한農村博物館의 建設計劃은總督府農林局에서設計를進行식히고잇든바 요지옥敷地의關係도 決定하얏슴으로 十三日正午前 渡邊農林局長室에서 石塚技師 澤會計課長、鹽田林政課長、其他 關係者가列席하야協議를行하얏는바多木氏와具體的으로協議되기위하야 鹽田林政課長은十三日夜急據渡東하얏다

▲火田民生活狀態畵報 (九)

寫眞에보이는굴뚝은보기에는 例스럽우나 알고보면平地市民으로서는想像이 밋치지못하는것이다即통나무를찍어다가 折半갈라서 속을 파가지고어어서筒을만들어 煙筒으로 한것이다 이것도山間에木材가만흔곳이 안이고서는 볼수업는 것이다 咸鏡道으로가며 吉州方面鐵道沿線에도 間間이보힌다 또 하나는 子두마代用하는것이다 相當한 機械設備가 잇서야制作할수잇는車輪은 山中에서는求하기도힘들거니와 잇대야道路가狹險한第谷雪路에 不適하다 이것이설매를利하여만든것인테소(牛)에메워가지고 울고다니게되엿다 山中에서는荷物運搬에唯一한道具가되여잇다

商業組合法 實施機運

中小業者救濟 新義州서陳情

【新義州】 中小商工業者救濟問題가 全國的으로論議되야 全朝鮮各商工會議所가 一團이되야가지고購買組合百貨店對抗策을講究하려는此際 新義州商工會議所加藤會頭는 十二日總督府에澤商工課長을訪問하고 商工會議所가 備保積立金을借入하야 이것을中小商業者資金으로서 低利로融通할方途를取하고십다는旨로 諒解를求하얏는바總督府에서는 會議所는强制團體인關係上 會議所自身이資金의融通을行한다는것은 理論的으로困難한立場에잇고 이것은엇더케하든지 商工業組合法에依한 組合을 組織시켜當케할것이라고 하고잇다 即朝鮮에도商業組合法을 實施할氣運이成熟하야왓다고볼것으로 總督府에서는 懸案의輸出統制法工業組合法과함께 商業組合法의立案에着手할意向인바 中小業者救濟問題에關하야 全朝鮮各會議所가奮起한만큼右組合法立案은 注目되야잇다

丁子屋의景品券付 商品券賣出

同業者、中小業者에問題化

西年掉尾의市中大商戰은歲末大賣出이라는名目下에 六萬圓餘의 景品券을中心으로싸나스가亂舞하고잇는店街는 歲晚景氣를 煽動하고잇는바 여기에依然丁子屋의 景品券付商品券賣出이 同業者間과및百貨店發行商品券을仇敵視하고잇는 中小賣商人에問題가되게되엿다 이에對하야丁子屋에서는 『警察의諒解를어더 商品券에景品券을贈呈하고景品券使用에依하야買上에는景品券을드리지안케되얏다』 라고樂觀하며同業百貨店側은 『景品券付 商品券發行은他에例가 업는일이다 商品券發行取締規則에는 抵觸한것이 안이나 商業慣習上 一種의支拂手形으로 各店이모다 現金과同一하게 認定하는것이다 여기에 景品券을붓친다는것은商品券을割引하야 賣出하는것이되야 重大問題로서일즉 日本某百貨店에서도 景品付로發行한일이 잇섯든바 吾等의商店에서는그러케까지 안이하야도商品券은 팔리며 商品券은商品이안임으로 景品으로부친다는것은 不合理한것이다』 라고反對하고잇다한다

平南道正租貯藏

協議會서配定等決定

【平壤】 米穀統制로 因하여全朝鮮的으로實施되는 正租貯藏에關한 平南道協議會는 十二日午前 十時부터 道會議室에서 大同、順川、中和、江西 平原、安州、价川의庶務主任 農業技術員 水利組合理事 農業倉庫長 그리고 銀行金融關係者로서 東拓、朝銀、殖銀代表者와 藤原知事 柳參與官 河野內務課長 柳米產業課長 山地財務部長 北條農務課長 其他關係職員別席으로 開會되여藤原知事의訓示로비롯하여 北條農務課長의正租貯藏의趣旨 其他에關한 說明이잇슨뒤 協議에들어갓다

平安南道各郡의割當數量은 順安 岐陽 船橋里의 既設農業倉庫等의收容二萬三千四百石을除하고 十一萬二千二十石을道內八個郡二十六個所에서二千七百三坪의倉庫를建設하여 貯藏하기로되엿는바 割當數量은다음과갓다

郡名	割當石數	割當坪數	倉庫豫定地
大同	一六、五二〇	四〇八	西平壤、船橋里、美林院、古平面
順川	八、三二〇	二〇八	順川、中坪、趁山
中和	八、〇八〇	二〇二	石隅、官洞
龍岡	一四、四八〇	三六二	鎭南浦、眞池洞、岐陽、溫泉
江西	一四、二四〇	三五六	江西、班石、咸從、甑山
平原	三〇、六〇〇	七六五	肅川、永柔、漢川、順安、石岩
安州	一七、九二〇	四四八	立石、萬城、新安州、
价川	二、一六〇	五四	价川邑
計	一一二、一二〇	二、八〇四	二十六個所

그리고 順安農業倉庫는百八十坪 岐陽農業倉庫는三百五十坪 船橋里正租倉庫에 二百坪八百石을收容할수잇는것으로 今月末부터野積을開始하여 一月半頃에맛추고 四月에倉庫建設을開始하여 積替後端境期까지의長期貯藏을 實施하게되여잇는데坪四十圓乃至五十圓으로서 簡易正租保管倉庫二十六個所의建築에는 前記八郡農會에서 國庫補助에依하여 建設하기로되여잇다 그러고방금正租貸金借出關係때문에 銀行業者와의 交涉이 進行되고잇는데 正租時期決定할것과 約束手形의期間에關하여、各銀行이 本店과協議中에잇서 一兩日中 此等의決定을볼수잇게되여잇서道內의正租保管은곳着手되리라고觀測된다

[illegible] 莫大한農會事業을이르키며 農民이불거 [illegible] 되는 矛盾이 [illegible] 納入期 [illegible]

元山港『明太』捕獲

每日三百駄식下場

【元山】 當港의近日明太魚捕獲은 方今當節期임에伴하야그漁獲이 豐盛하얏섯든이다近日에至하야 每日氐曳網船이二十餘隻식入港하야 三百駄의下場을보는데 千明太의製造에不當 季節임에잇서 市勢는 四十圓乃至五十圓(一駄)이며 今後라도天候가좀寒하게되면市勢도暴騰되고漁獲도더욱豐盛하리라한다

米穀檢查過酷!

機械休轉、在庫品山積 清道精米界의苦憫相

【清道】 昨今清道精米界의動向은米穀檢查의 過重으로未曾有의苦悶相을 뵈고잇다白米出廻가低迷하야在庫品이 山積한데機械를休轉하니 正租價格이더욱떠러진다 正租每斤五錢三厘가本格的이나 從來檢查가通하던白米含有 水分量一七패센트로부터 一六패센트에니르기까지 檢查上標準乾燥가充分치안흐면 안됨으로도그의 損料를除하는貨饑 米穀商의正租買入은四錢九厘乃至 八厘까지下落하야 每日一二〇噸의 巨大한米穀을移出하는 清道貿易界에잇서 이러한混亂과 主因이 거의 休業狀態에瀕한精米貿易의 澁滯를이러키는 反面密陽守山等地에는 檢查程度의差異로 正租每斤五錢二厘가買收되여 上價格이 되는關係上淸道山東一帶의穀物은 隣郡密陽으로集中하는傾向이나타낫다 郡境을두고 檢查가不等하야淸道米穀편이고

商工會議所아닌 各種의商工團體

五十九個所會員五千三百五十一人 불만한事業이업서걱정

總督府調查=各道의 商工會等으로서 商工會議所가아닌 一般任意團體는 總數五十九個所 會員數 五千三百五十一人으로 各團體의 最近一事業年度의收支決算及事業의 狀況을보면 右五十九個團體의 決算總額一千圓을超한것이 九、一千圓以下五百圓을超한것이 三에不過한狀態이다 其事業으로서는 商工業에關한 調查及陳情大賣出等의開催又는 優良店員의表彰等을 實施하는것도잇스나 大體는 格別히 事業이볼만한것이 업는데 各道別槪要는如左하다

道名	團體數	會員數
京畿	三	五〇九
忠北	二	一〇三
忠南	五	三三九
全北	三	三四九
全南	二	七一一
慶北	五	五二六
慶南	八	四六九
江原	五	二七一
咸南	四	六七
咸北	五	七三四
黃海	五	五三二
平南	二	一七三
平北	—	—
計	五九	五、三五一

『鮮米協會』 解散總會

『鮮米協會』解散總會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開催하고

一、當協會解散決議의件
二、決算案財產目錄承認의件
三、剩餘金處分案承認의件
四、殘餘財產處分의件
五、當協會權利義務一切를 社團法人 鮮米協會에게繼承할 意件
六、其他解散에關한 一切의件

을承認할件을 附議協議한結果滿場一致로써 原案과가치 可決하고 繼續하야社團法人鮮米協會 第一回社員總會를 開催하야

一、鮮米協會殘餘財產繼承의件
二、鮮米協會의一切權利義務繼承、承認의件
三、八年度社團法人鮮米協會豫算案承認의件
四、評議員選擧의件
五、其他設立上에關한一切를承認件

을附議하기로한후正午에休憩하얏다

奉天朝鮮人金融會

低資와補助金運動

具體案作成코交涉

【奉天】 奉天朝鮮人金融會에서는創立된 以來在奉朝鮮人商工業界에 만흔도음을주어오는바同會는本來多額의資金을가지지못하엿슴으로 一般商工業者間에널리利用되지못한것을 遺憾으로생각하야 今年여름부터總督府其他에 低利資金及補助金運動에만은研究를거듭하엿는데最近에具體案이成立되여同會會長池錫模氏가 六日밤車로總督府로出張하야 直接交涉하기로하엿다는데 一般商工業者는큰期待를가지고잇다고한다

營業稅로본 興南의裏面相

朝鮮人平均七圓餘

【興南】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興南一帶를工場地帶로機械화하노은以來 日本人의職工과商人이氾濫하여진것은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朝、日人及外國人의 商業狀態를調査하야보건대 昭和八年度營業稅로 그實際之差를表現하엿스니 이것으로 興南의朝日人生活程度를充分히解得할수잇슬것이다

日本人	二〇八人	六七、七三〇
朝鮮人	一八八	一、三六六、六六
外國人	六	四〇、二

으로서 日本人은 每人平均三百二十五圓六十二錢强이고朝鮮人은每人平均七圓二十六錢强이고 外國人은 每人平均六圓七十錢이라는 엄청나는差異를보이고잇다고한다

寒心한永興商界

朝鮮人은漸次로衰退

【永興】 인구칠만여를포함하고잇는 함남영흥(咸南永興)상계는오륙년전만하여도조선인의 전성시대로 날로 번창하여오던바 최근사오년내로는 외인의침입을밧기시작하여지금에와서는 조선인의 상업가라고는 볼수가 업게되엿다연말(年末)을갓가이 마지하고잇는 오날 영흥상계는 실로비참한지경에싸지고잇다면 포상(綿布商)게를 들아보면 열세상점이나되는면포상속에김용연(金丽瀾商店)과화주상점 (和州商店)만이홀로 조선인의손에서경영되여나아갈뿐이고그외십여상점은전부가중국인들의손으로연일번창하여감으로실로한심한일이다잡화상(雜貨商)게를들어보드래도일본인재벌들의손에서 경영하여가든 상점이 태반이고 조선인경영으로 수산상점이 하여가는바 면포상게에 비하면 다소라도 활기를띄우고잇든 형 고무화(靴)점만은 아즉까지 순조선인의손에서 그런부가 경영되여가며 그다음 조선인권장 자랑하고 영흥상계를 지배하든것은 곡물무역상 들인데 이들은동아 양행주식회사(東亞貿易倉庫株式會社)를 이삼년전에 설치하고 상권을도 독점하여날로 번창하여가는 형편임으로 실로것버한일이나 그외상권은 수년내로 외인들의다대한 침입을 밧을형편이되리라고한다

北鮮炭初移出

南浦發日本向

朝鮮炭의日本進出은 多期에 아着着行하는바 今秋 滿浦線의開通에依하야 福井氏의 泉炭會朝無의 龍源炭同江西炭이 鎭南浦에서 初出荷되어阪神 及東京에向하야 朝鮮炭의 市場開拓을 하기로되어 이미 第一回는 八十川丸 (三、三〇〇噸)으로 數日前 鎭南浦를出帆하야第二船三河丸이 十四日船出할터이바 今年度는 同港結氷期인 明年一月二十日頃안에龍泉二萬五千噸 龍源一萬噸江西五千噸計四萬噸이 出荷되게 되엿다

大豆不出廻로

永興商界零星

【永興】 永興平野에서 產出되는 農產物中 가장重要한地位를占하고잇는 年產 十萬餘石의收穫을보든 大豆!近頃 永興의 各市場에 出廻遲遲로因하야 商界는極히 零星한狀態에 陷하야잇다 그原因은 今年氣候가前例업시 不順한關係로 大豆에虫害가만허서 檢查가넘어도 可酷히甚한결과 若干의收穫物이나마 低下되지안은氣溫은 每日호리기만하야 打場精選치 못하는 가닭이라고하는데 生産者인農民들의 損失은勿論 零星해진商界도 그打開策에 無暇히苦心中이라고한다。

夕刊後의市況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	—	—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	—	—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	[illegible]	[illegible]
拓新	—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大新	[illegible] 高
鐘新	[illegible] 高
日產	[illegible] 高
東新	[illegible]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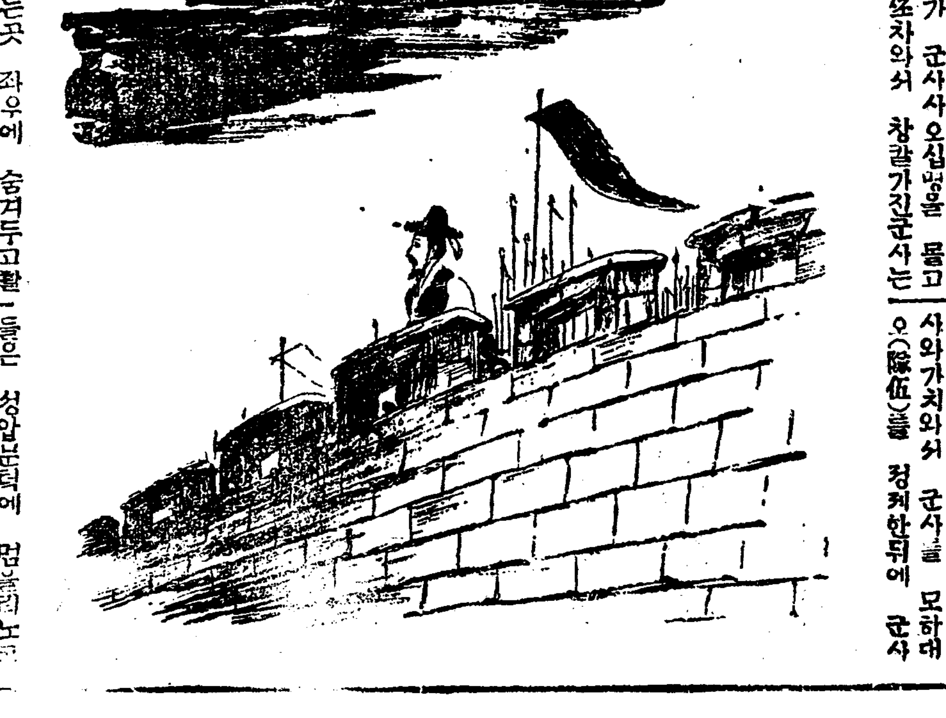
橫濱生糸後引

當	[illegible]	先 [illegible]

林巨正傳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이봉학이 二의五 (2421)



아침때가 지난뒤에 왜가다시 몰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치는데 어제낫과 밤 두번다 리(利)를못보아서분병(憤兵)이 되엇든지 긔세가 사나웟다무서운 큰길이 성벽의틈을 부시고성문에구멍을 뚤렷다 성우에서는 밋는이 업인데 ㅏ깨가 쫄다하서 사람을 가리 방패틈에서 활질을하는것밧 화살이 사람을 마치기 어려웟다 쳠사와 봉학이가 피노한군사들을 동독하야 막기를 힘썻스나 왜는마침내 성미레와서 허리켯서 한편 에서는 성을 부시고 들어오라 하고 한편 에서는 성을 타고 넘으라하얏다 성우에서는 떵이 돌을 나려굴리고 끌는물을퍼어인켯다 성안백성들의 녀편네까지 다나섯건만 막는손이 모자라서 성벽반곳이 헐리기 시작하얏다 이러틋 쳠사는 엇지할줄을 몰으는데봉학이가 군사사오십명을 몰고 급히쪼차와서 창칼가진군사는 헐리는곳 좌우에 숨겨두고활가진군사는 헐리는곳 정면에 벌려세웟나 성이 헐어지며 왜가 뛰어들어오다가 아페서오는화살에 넘어지고 좌우에서 나오는 창과칼에 꺽구러젓다 봉학이가 재목과돌로 헐린곳을 막으랴고 큰저백성들을 불러서 지휘하는중에 왜가 다시 떼로 몰려들어오는데 압장선 왜장하나가 갑옷과투구로 몸을 단단히하야 방패가 업서도 화살을 겁내지안헛다 봉학이가 대우전(大羽箭)을시위에 먹여들고 틈을 노리다가 투구채양아래 내노흔 한편눈을쏘아마첫다 왜장이 눈에쏘진 살을쌔서 내던지며련동가티 소리를질를때 입이잠간 들어나자 봉학이는 얼른 다시 대우전으로 그입을쏘다 넘어지라는 왜장을 뒤에 쌀흐든 왜들이 붓들고 도망하야 나가니 봉학이가 사수들을 휘동하야 아프로나오며 어지럽게 쏘아서 왜장인에여러왜놈 쐭구러트렷다 그러나 갈든왜들이 비켜나며곳 불질하는왜들이 나타나서 사수가 륙칠넝이 불을맛고 쏠어지는데 봉학이 여페 갓가이잇든사수가 두셋이나 쏠어것다 한동안 불과화살이 오고가고하다가 불이 끈치며왜가 물러갓다 봉학이가 일변 성헐린곳을 막게하고 일변쏠어진사수를 돌아보앗다 된불맛고 죽은송장은 잘처치하게 하고 선불맛고 죽지안흔 사랑은 잘구호하게 한뒤에 봉학이가 성우에 올라와 서 성밧글 바라보니 왜들이헤면으로 몰려나가는것이 무엇에 쫏겨서 도망하는것 가텟다봉학이가 의심하며 봉학이가 다시 멀리 바라보니 긔치(旗幟)가 보이고 인마(人馬)가보이고 얼마뒤에 복소리가 들리고 나발소리가 들리엇다 봉학이가 쳠사에게로 가라고 성에 나려오는길에쳠사가마주쏘차오며

『구원병이 왓소』

하고 소리치고 봉학이게와서 손목을 덥석 잡으며

『인제 우리가 살엇소』

하고 한숨까지 내쉬엇다 쳠사는 바로 성문을 열고구원오는 병마를 마저드리라고 하는것을 봉학이가

『참말 구원병인지 혹시 적병인지 확실이 안뒤에 성문을 엽읍시다』

하고 말리엇다 봉학이가 쳠사와가치와서 군사를 모하대오(隊伍)를 정제한뒤에 군사들은 성압분덕에 면을러노코 봉학이는 쳠사와가치 다시 성문우에 올라가서 아래를나려다보니 호남병마절도사긔가 발서 성가가히 들어왓다 전라병사가 친히 병마를 통솔하고 온것이다 봉학이가 그제야 성문을 열게하고 쳠사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박게 나가서 마저드렷다 병사가 입성한뒤 쳠사와봉학이가 병사를 뫼시고 지난싸움을말슴하든쓰테 봉학이가

『소인의생각에는 수륙(水陸)이합세하오면 왜선을 못질를수가 잇슬것가싸온데 우수영(右水營)에 긔별하야 보시면 어떠하올지』

하고 말슴하니 병사는 를을 지으면서

『명일 오시에 가리포 압바다에서 수륙합공(水陸合攻)하자고 수사와 약회하고 온길이다』

하고 말하엿다

이튼날 나제 병사가 여러백명 장졸을 거느리고 해변으로 나오고 우수사가 두대백이큰 배 수십척을 몰고 포구로 들어올때 포구 안에 왜선은 한척도 업섯다 전날밤에 동남으로 멀리 달아난것을 다들 알게로 못하얏다 병사나 수사나 속으로는 체를지안케 생각하는 위인들이 이면쳐리도 시키느진것을 후회하얏다